



# 남은 신자들에게 주시는 천상의 메시지



이 메시지들은 사랑으로 일치하도록 하기 위한 에큐메니컬 운동의 일환으로 천상이 모든 백성과 모든 민족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 거룩한 사랑의 선교회, 에큐메니컬 성지 공식 간행물 (Holy Love, an Ecumenical Ministry)

2019년 4월

**거룩한 사랑의 선교회**는 에큐메니컬 평신도 사도직입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제 821 조에는 에큐메니즘 운동에 관해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공동 기도, 마음의 회개와 거룩한 생활은 그리스도인들의 일치를 위한 사적 공적 기도와 더불어 일치 운동의 혼으로 여겨야 하며, 마땅히 영적 일치 운동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느님 아버지와 우리 주님, 우리의 모후와 수많은 성인과 천사 들이 마라나타 샘과 성지에 발현하고 계십니다. 미국인 목격증인인 모린 스위니-카일 (Maureen Sweeney-Kyle)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는 영혼을 거룩하고 신성한 사랑 꿈, 하나되신 성심의 심방들을 통해서 개인적 거룩함으로 가는 여정으로 이끕니다.

거룩한 사랑의 선교회는 모든 신앙의 모든 사람을 환영합니다. 기도는 보편적 언어입니다.  
모든 순례자는 이곳에 와서 함께 기도하고 천상이 이 성지에 내리는 평화를 함께 누리기를 초대합니다.

### 하나되신 성심의 축일 - 2019년 6월 30일

“하나된 성심의 축복은 6월에 있는 하나된 성심의 축일에 주어질 것이다. 이 축복 또한 강력한 축복이다.”  
(하느님 아버지 - 2019년 4월 29일)

#### 6월 29일 토요일 기도 모임 - 하나되신 성심의 축일 전야

저녁 7:00: 기도 모임 - 기도회관 (United Hearts Chapel)  
밤 11:30: 행렬 및 자정 기도 모임, 천상의 축복 - 하나되신 성심의 별판 (발현 없음)

#### 6월 30일 일요일 기도 모임 - 하나되신 성심의 축일

오후 2:30: 행렬 및 오후 3시 기도 모임, 약속하신 발현과 하나되신 성심의 축복 - 하나되신 성심의 별판

■ 2019년 4월 1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전투에 임하기 전에 너희는 적이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아두어라. 지금은 사악한 시대이며 거짓말의 왕자인 사탄은 선을 고발하고 내 계획에 맞선다. 그러나, 세상의 미래는 너희가 정확히 선악을 분별하는 데 달려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라. 그러나 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분별하려 하지 마라. 너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깨우쳐 달라고 성령께 기도하여라.”

“적그리스도는 선하고 친절한 모습으로 위장하고 올 것이다. 사탄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의 사악한 모습을 드러내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어둠의 왕자가 너희가 예상치 못하는 곳에 그의 앞잡이들을 얹혀 놓은 다음에는 그에게서 힘을 억지로 빼앗기가 매우 힘들 것이다. 바로 지금 이 시대가 세상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결정의 시간이다. 진리와 정직함을 중시하여라. 죄를 (알아보지 못하도록) 위장해 놓은 사악한 운동을 지지하지 마라. 자유라는 미명 하에 죄의 종이 되지 마라. 나는 의로움이라는 미명 하에

불법적인 생활 방식을 선택한 이들이 누구지 알고 있다. 나는 그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내 성심, 내 이상, 내 사랑을 주고 싶다. 이 메시지들은 세상의 마음을 내 부성적 성심에 부동켜 안기 위한 내 노력이다. 나는 이곳 성지에서 믿는 이와 믿지 않는 이들 모두에게 말하고 있다.”

#### **+ 성경 구절 독서 (2 테살 2:9-12):**

그 무법자가 오는 것은 사탄의 작용으로, 그는 온갖 힘을 가지고 거짓 표징과 이적을 일으키며, 멸망할 자들을 상대로 온갖 불의한 속임수를 쓸 것입니다. 그들이 진리를 사랑하여 구원받는 것을 거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서는 그들에게 사람을 속이는 힘을 보내시어 거짓을 믿게 하십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한 자들이 모두 심판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 2019년 4월 2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자녀들아, 내 뜻을 너희 마음속 왕좌에 앉혀라. 그렇게 하면 우리 마음이 하나로 고동칠 것이다. 오, 세상의 마음을 내 부성적 성심에 꼭 부동켜안을 수 있기를 내가 얼마나 간절히 바라는지! 인류는 내 조언을 구하지 않는다. 인간은 내가 그들이하기를 바라는 것을 중심으로 계획을 짜거나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그들의 계획이 실패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부나 권력, 또는 그 외의 세속적 유혹을 통해서 사람들의 눈에 큰 인물로 보이려고 노력하지 마라. 나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 노력하여라. 그러면 너희는 성공의 길을 따르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같은 말을 반복한다 - 내 뜻을 받아들여라. 만약 모든 이가 이렇게 한다면 세상은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

“인류의 실수는 모두 그들이 내 뜻을 받아들이고 따르기를 거부하는 데서 비롯된다. 인간은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내 뜻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더 깊은 기도 생활을 하라 부른다. 그러면 너희는 진리에서 결코 멀리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의 선택은 내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 **+ 성경 구절 독서 (유다 17-23):**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예고한 말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여러분에게,

“마지막 때에 자기의 불경한 욕망에 따라 사는 조롱꾼들이 나타날 것이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저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로서, 현세적 인간이며 성령을 지니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극히 거룩한 믿음을 바탕으로 성장해 나아가십시오.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다리십시오. 의심하는 이들에게 자비를 베푸십시오. 어떤 이들은 불에서 끌어내어 구해 주십시오. 또 어떤 이들에게는 그들의 살에 닿아 더러워진 속옷까지 미워하더라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자비를 베푸십시오.

■ 2019년 4월 3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나는 모든 백성과 모든 민족이 그들의 창조주인 나와 화해하도록, 그리고 나에게 대한 사랑에서 서로 화해하도록 하기 위해 다시 한 번 너희에게 왔다. 사탄은 모든 부정적인 비난의 아버지다. 영혼들로 하여금 서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것은 사탄이다. 또한 작은 문제를 큰 문제로 만드는 것도 사탄이다. 결탁을 조장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결탁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그것이 있다고 의심하게 만드는 것도 사탄이다.”

“사탄은 왜 평화에 반대할까? 사탄은 나에게서 나오는 모든 일치에 맞서며, 분열을 부추겨 자신의 목표가 곧 인간의 목표가 되게 만든다. 너희가 서로 의견이 다르다면 그것은 인간적인 것에 지나지 않지만 그런 의견 차이가 불화로 확대되도록 내버려두는 것은 사탄을 위해 일하는 것이 된다. 지상에 내 왕국 곧, 내 남은 신자들을 성장시키기 위해 서로 한 마음으로 일하여라.”

“내가 너희를 부르는 일치는 단일 세계 질서 같은 일치가 아니다. 이런 일치는 오직 적그리스도의 통치를 가져올 사탄에게 유익할 뿐이다. 하느님 아래 일치하도록 주의하여라. 사탄의 사악한 계획에 길을 열어주지 마라. 사람들의 마음이 모든 악으로부터 마음을 보호하는 경계를 가져야만 하는 것처럼 국가 또한 국경을 유지해야만 한다.”

#### **+ 성경 구절 독서 (에페 4:1-6):**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수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겸손과 온유를 다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서로 참아 주며, 성령께서 평화의 끈으로 이루어 주신 일치를 보존하도록 애쓰십시오.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하나의 희망을 주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이고 성령도 한 분이십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이며 세례도 하나이고, 만물의 아버지이신 하느님도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만물 위에, 만물을 통하여, 만물 안에 계십니다.

■ 2019년 4월 4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발의된 ‘심장 박동(Heartbeat)’ 법안이\* 지금 오하이오(Ohio) 주에서도 발의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기쁘다. 이 법이 시행되면 수많은 생명뿐 아니라 수많은 영혼들도 구제될 것이다. 전 세계가 이런 정책을 받아들인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러나 현재 많은 나라들이 태어나지 않은 아기들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 때문에 그들 자신의 안녕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

“모든 창조물은 내 뜻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이해하기 시작하여라. 내가 모르는 시작과 끝맺음은 없다. 인간의 영은 모든 창조물에 관한 지식에 한계가 있다. 인간은 대부분의 경우 자신의 모든 행동이 전세계에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나는 너희의 기도는 어떤 대량 살상 무기보다도 더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기 위해 이곳 성지에 왔다. 바로 너희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사람들의 의견과 상황 들을 바꿀 수 있는 것이다. 너희의 기도가 ‘심장 박동 법안’이라는 결과를 낳은 사실을 보아라. 어떤 기도든 기도를 좌절시키는 것은 언제나 사탄이다. 사탄은 내 뜻의 적이기 때문이다. 이제 너희의 기도의 영향을 더 잘 깨닫게 되었으니 힘을 얻어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여라.”

\* 오하이오 주의 ‘심장박동 법안’은 태아의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 것이 외부 장치에 의해 감지되면 낙태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입니다. 심장박동 법안은 2016년 12월 오하이오 주 상, 하원에서 모두 통과된 바 있으나 존 케이스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했었습니다. 이 법안은 2018년 아이오와 주에서 통과되어 그해 7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2019년 3월 30일에는 조지아 주 하원에서 통과되었습니다.

#### + 성경 구절 독서 (콜로 3:17):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이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서, 그분을 통하여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 2019년 4월 5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나는 너희에게 말하기 위해서 또다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너희에게 왔다. 너희는 내

눈에 중요하게 보이도록 노력하지 않는 한 중요하지 않다. 어떤 것도 세속적으로 중요한 것을 너희가 추구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먼저 신성한 사랑의 나라(왕국)를 찾아라. 그러면 너희는 모든 것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너희의 목표가 거룩한 사랑에 기초하지 않을 때 원수는 쉽게 너희를 사로잡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 그러면 의로움의 길이 분명하게 보이지 않게 되고 아주 강한 영혼까지도 혼란에 휩싸이게 된다.”

“너희에게 말하지만, 태아 목주는 모든 기도를 경멸하는 사탄에 맞서는 최상의 무기가 되었다. 사탄은 이 목주가 세상에 주어졌던\* 그 수단을 공격함으로써 이 목주의 신빙성을 없애려 했지만 특히 낙태와 싸우는 데 있어 이 목주기도의 열매는 반박의 여지가 없다. 나는 이 목주의 사용과 전파를 장려한다.”

“우리는 낙태약 뿐 아니라 대중 매체 안에 존재하는 악 또한 감소시키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대중 매체는 사회적 행동양식과 옷차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사회적으로 용인 가능한 도덕적 행동은 일반적인 사회적 상상력에 전적으로 달려 있게 되었다.”

“우리는 사탄이 (인간의) 품위를 침해하는 것에 맞서 목주로, 특히 태아 목주로 계속 공격해야만 한다. 이것은 너희를 격려하기 위해 내가 천국에서 내려오게 할 만큼 중요한 것이다. 나는 너희가 우선 순위를 바로잡도록 도와주기 위해 왔다.”

#### \* 1997년 10월 7일 메시지 참조

#### + 성경 구절 독서 (콜로 3:1-4):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으니, 저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느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은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느님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인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 속에 나타날 것입니다.

■ 2019년 4월 5일.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서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님.”

“사랑하는 자녀들아, 아빠 하느님께서 하느님의 자비심 축일에\*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게 될 또다른 은총에 대해

너희에게 말해주라고 나를 보내셨다. 많은 이가 기도 모임\*\* 중에 그곳에 모인 사람들 사이에서 반짝이는 불빛들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불빛’들은 사실 사람들이 기도할 때 군중 사이를 지나가게 될 천사들이다. 나는 거룩한 천사들의 모후로서 이것을 너희에게 알려주게 되어 기쁘다.”

\* 약속하신 다음 발현, 2019년 4월 28일

\*\* 오후 3시 기도 모임

■ 2019년 4월 6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자녀들아, 나는 너희를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으로부터 구해주었다. 너희는 오직 나의 명령에 의해서만 지상 여정을 계속 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너희가 어디 있는지 잘 살펴보고 지상에서의 너희의 남은 인생 동안 나를 섬기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내게 물어보아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간의 흐름이 내가 그들에게 주는 선물임을 깨닫지 못한다. 그들은 내가 아니라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자들이다. 각 영혼이 심판 받기 위해 내 아들 앞에 서야 하는 가장 좋은 시간을 선택하는 이는 바로 나다. 너희는 너희의 심판의 때가 언제인지 모르므로, 지혜로운 이는 숨을 쉴 때마다 마치 그것이 자신의 마지막 숨인 것처럼 살아간다.”

“너희 삶의 초점을 가장 먼저 나에 대한 사랑으로, 두번째로 너희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바꾸어라. 만약 정부와 정치인들이 이렇게 살아간다면 세상에는 긍정적인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여러 형태의 엔터테인먼트는 더이상 구원을 위협하지 않게 될 것이다. 죄는 죄로 인식되고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죄를 피하게 될 것이다. 또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더이상 용서못함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모든 이의 마음은 내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나를 기쁘게 하는 데 집중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 너희 삶의 진짜 목적을 상기시켜 주기 위해서, 그리고 너희를 회심으로 부르기 위해서 너희에게 왔다. 내 말을 유념하고, 너희의 구원을 위해서 주어지는 매 현 순간에 대해 감사하여라.”

#### + 성경 구절 독서 (2 코린 4:8-12):

우리는 온갖 환난을 겪어도 억눌리지 않고, 난관에 부딪혀도 절망하지 않으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맞아 쓰러져도 멸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짚어지고 다닙니다. 우리 몸에서

예수님의 생명도 드러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 있으면서도 늘 예수님 때문에 죽음에 넘겨집니다. 우리의 죽을 육신에서 예수님의 생명도 드러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서는 죽음이 약동하고 여러분에게서는 생명이 약동합니다.

■ 2019년 4월 7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너희 앞에 너희 자신의 지성이나 과학 기술, 불법적인 생활 양식이나 엔터테인먼트나 옷차림 등 거짓 우상들을 두지 마라. 나는 하늘 나라와 지상의 나의 왕국 두 가지 모두를 위해서 너희를 창조하였다. 나의 왕국은 영원하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 지옥도 마찬가지로 영원하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너희에게 오는 것을 무시할 수 있는 것으로 치부하지 마라. 너희가 마음속으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지에 주의하여라.”

“나는 모든 백성과 모든 민족을 위해서, 이 세대와 깨우침을 얻은 후에는 내 목소리를 듣고 알아볼 미래 세대들을 위해서 오는 것이다. 영혼이 일단 내가 이곳 성지에서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으면 그의 삶 전체가 바뀌게 된다. 나는 영혼들이 내가 이곳에서 주는 지침에 의지하기를 바란다. 이 메시지들은 내 계명을 수용하기 때문이다. 세속적인 인정이나 승인을 너희 마음속 첫째 자리에 두지 마라. 이것들 또한 거짓 신이 될 수 있다. 오히려 내가 너희에게 전해주려고 온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내 계명에 순종하는 것을 갈망하도록 나를 많이 사랑하여라.”

#### + 성경 구절 독서 (로마 6:20-23):

여러분이 죄의 종이었을 때에는 의로움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때에 여러분이 지금은 부끄럽게 여기는 것들을 행하여 무슨 소득을 거두었습니까? 그러한 것들의 끝은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죄에서 해방되고 하느님의 종이 되어 얻는 소득은 성화로 이끌어 줍니다. 또 그 끝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죄가 주는 품삯은 죽음이지만, 하느님의 은사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받는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 2019년 4월 8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나는 파멸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세대에 개입하기 위해 지금 이 시대를 선택하였다. 이 세대는 나를 모욕하는 새로운 방법을 발견했는데 곧, 내 계명에 대한 새로운 왜곡이다. 요즘에는 다른 사람이 하면 (나도 해도) 괜찮다는 식의 태도가 존재한다. 내 허락은

더이상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 이런 사고방식은 과거 세대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

“이교도 신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장악해 버렸으며 그 추종자들은 그것의 허용을 강력히 요구한다. 돈과 권력과 소비주의라는 거짓 신들이 내게서 사람들을 앗아가고 있다. 나는 영혼들을 나에게 대한 사랑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 오고 있다. 나는 영혼들에게 평화는 물론이거니와 오직 가장 좋은 것, 최상의 은총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 나는 잉태의 순간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각 영혼을 사랑한다. 나는 천사들을 보내 각 영혼을 지키고 의로움의 길로 그들을 인도하게 한다. 죄는 천사들의 노력을 막는 장벽이다. 너희의 마음이 혼란과 갈등의 소음으로 가득차 있다면 너희는 너희의 천사들의 작은 목소리를 듣지 못할 것이다. 나는 내 손을 세상의 마음에 얹어 세상의 마음이 내 존엄한 성심과 조화를 이루며 공동치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런 날이 올 것이지만, 내 진노 없이 그런 날이 오지는 않을 것이다.”

#### **+ 성경 구절 독서 (히브 2:1-4):**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들은 것을 더욱더 명심하여, 빛나가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선포된 말씀이 유효하고, 그것을 여기거나 따르지 않는 자들은 모두 정당한 벌을 받았는데, 하물며 우리가 이렇듯 고귀한 구원을 소홀히 하면 어떻게 벌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 구원은 처음에 주님께서 선포하신 것으로, 그것을 들은 이들이 우리에게 확증해 주었습니다. 하느님께서도 당신의 뜻에 따라, 표징과 이적과 갖가지 기적을 통하여, 또 성령의 선물을 나누어 주시어 당신의 증언을 보태어 주셨습니다.

■ 2019년 4월 9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내가 매일 이곳 성지에 오는 목적은 세상의 마음을 바꿔 내 부성적 성심과 일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것은 인간이 그들의 삶에서 내 신성한 뜻을 첫째 자리에 두기로 결심하지 않는 한 이루어질 수 없다. 내 왕국이란 모든 이의 마음속에 자리잡은 내 신성한 뜻의 왕국을 말한다.”

“다른 무엇보다도 자신의 뜻에 매달리는 영혼은 아무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영혼들이 그들의 마음이 내 신성한 성심과 하나로 일치하여 공동치게 한다면 그들은 낙원을 얻을 자격이 있다. 그때에 사람들의 마음이 용서못함과 세상의 찬사와 세속적 욕망에서 자유롭게 되고, 비로소 내가 진정으로 그들은 내 것이라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때에 그들은 진실로 나를 신뢰하고 내 신성한 뜻을 신뢰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은 자유의지를 내맡기는 엄청난 노력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나는 사고방식과 우선 순위들을 세속적인 것에서 신성한 것으로 바꾸기 위해 오고 있다. 나는 지상에 천국을 세우기 위해 온다. 모든 영혼을 향한 내 부름 안에는 내 신성한 뜻에 따라 바뀌어지기 위해 노력하라는 요청이 들어있음을 보아라.”

■ 2019년 4월 10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내가 지켜보는 가운데 너희가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아라. 너희는 하루 동안 나를 자주 생각하느냐? 너희는 시간이 지나가는 사이 잠시 시간을 내어 내게 너희의 사랑을 주기 위해 노력하느냐? 진실로 내게 봉헌된 마음을 가진 이는 나에게 대한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나에게 대한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표현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방법을 찾는다. 너희는 매일 매일 나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만 한다.”

“다시 한 번 너희에게 말하지만, 단지 순명을 위해서 복종하는 것을 조심해야만 한다. 만약 순명이 나와 더 깊은 관계를 맺는 것에서 너희를 멀리 데려간다면 너희는 누구에게,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 복종을 요구받고 있는지를 면밀히 따져보아야만 한다. 모든 지도자들이 다 나의 지지를 받는 것은 아니다. 개중에는 세상에서 내 진리의 왕국을 무너뜨리기 위해 자신의 힘을 사용하는 지도자들도 있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 일하는 지도자들도 있다. 나는 인간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진리로 이끌기 위해 이곳 성지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 **+ 성경 구절 독서 (1 티모 2:1-4):**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청과 기도와 전구와 감사를 드리라고 권고합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여, 우리가 아주 신심 깊고 품위 있게, 평온하고 조용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느님께서 좋아하시고 마음에 들어 하시는 일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 2019년 4월 11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나는 세상의

마음속에 내 부성적 성심에 대한 신심을 심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내 성심은 모든 영혼을 품에 안아줄 준비가 되어 있는 아버지의 성심이다. 그렇기에 세상의 마음을 부드럽게 바로잡아주고 회개시킬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요즘 시대의 사람들은 나를 그저 심판의 팔을 세상에 내리고자 하는 엄격한 심판자로만 여긴다.”

“(영혼을 품에 안아주는) 이런 감싸안음은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며, 그들이 자녀를 염려하는 아버지로서 나를 사랑하도록, 또 내 계명을 받아들이도록 도와준다. 내 부성적 성심에 대한 신심으로 부르는 내 부름에 응하여라. 이것은 세상의 마음을 사탄의 손아귀에서 낚아챌 수 있는, 생명을 주는 신심이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가 내 성심을 감싸안으며 받아들일 때 그 보답으로 나 또한 너희 마음을 감싸안는다.”

**+ 성경 구절 독서 (1 요한 3:24):**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분 안에 머무르고, 그분께서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르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 머무르신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알고 있습니다.

■ 2019 년 4 월 12 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자녀들아, 나는 세상에 내 부성적 성심에 대한 신심을 확립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너희에게 청한다. 이 신심은 세상의 마음을 회심시키고, 무관심한 태도에서 나에 대한 보편적인 사랑으로 가득찬, 배려심 많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류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다.”

“인류가 그들의 삶에서 아버지로서의 내 역할을 인정하지 않을 때 그들은 매 순간 그들 존재의 모든 면을 살피는 내 부성적 염려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내 성심은 오늘날 모든 이의 삶 속에 존재하는 사탄의 술책으로부터의 보호다. 지금 이 시대는 사악하기 때문이다. 내 성심은 오늘날의 혼란 속에서 나아가야 할 방향(지침)을 제시해준다. 내 성심은 모든 영혼에게 애정을 품고 있기에 내 눈에는 온 인류가 하나로 보인다. 그러므로, 이것은 모든 곳에 있는 내 모든 자녀들에게 서로 일치하라는 부름이다. 내 부성적 성심 안에서 모두 한 마음, 한 뜻이 되어라. 서로간의 모든 차이가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사랑하고자 하는 보편적인 갈망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라. 온 인류를 바라보는 내 부성적 눈길이 세상의 마음을 내 부성적 성심에 근거한 신성한 사랑의 마음, 자녀다운 사랑의 마음으로 만들 수 있게 하여라. 이것이 나의 바람이다.”

**+ 성경 구절 독서 (필리 2:1-2):**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격려를 받고 사랑에 찬 위로를 받으며 성령 안에서 친교를 나누고 애정과 동정을 나눈다면, 뜻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을 지니고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이루어, 나의 기쁨을 완전하게 해 주십시오.

■ 2019 년 4 월 13 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내 부성적 성심은 예수 마리아의 하나된 성심을 감싸고 있다. 하나된 성심의 심방들을 통과해 들어가는 여정을 시작하는 영혼은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지만, 이 여정은 또한 내 부성적 성심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여정이기도 하다. 사악한 자는 너희가 하나된 성심을 통해 나아감으로써 내 부성적 성심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한다. 사탄에게 허를 찔리지 마라. 그자의 교묘한 속임수는 언제나 무질서한 자기만을 위한 사랑으로 위장되는데 이는 야심, 질투, 용서못함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거룩한 사랑의 완덕에 이르도록 기도하여라. 이것은 사탄의 계획에 대항하는 너희의 방어 수단이다. 사탄은 모든 영혼의 멸망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내 부성적 성심의 안전한 피신처를 구하여라. 나는 너희의 보호이자 인도자다.”

**+ 성경 구절 독서 (에페 5:1-2):**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답게 하느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하느님께 바치는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내놓으신 것처럼, 여러분도 사랑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 2019 년 4 월 14 일 - 주님 수난 성지주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세상에서, 그리고 너희 마음속에서 부활절이라는 위대한 축일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만, 너희는 내 아들의 재림 또한 준비해야만 한다. 이날은 달력에 그 날짜가 표시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주의를 기울여라.”

“나는 내 남은 신자들에게 세속적인 세상과 거리를 둘 것을 청한다. 기도와 희생 안에서 서로 일치하여라. 세상에 전념하는 이들이 진리에 대한 너희의 헌신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허락하지 마라. 내 아들이 반드시 재림할

것이라는 너희의 믿음을 확고히 하여라. 다른 이들에게 이 헌신의 모범이 되어라. 내 남은 신자들은 바로 이렇게 하는 가운데 그 수가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이제 내 아들의 수난과 죽음을 기념하기 위해 따로 정해진 한 주간인 성주간이 시작되고 있다. 이 준비 기간 동안 이 세상도 너희와 함께 부활절을 경축하고 부활의 모든 종교적인 뜻을 기념하기를 바라는 내 희망의 손길을 보아라.”

**+ 성경 구절 독서 (에페 2:19-22):**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외국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닙니다. 성도들과 함께 한 시민이며 하느님의 한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바로 모퉁잇돌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전체가 잘 결합된 이 건물이 주님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납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하느님의 거처로 함께 지어지고 있습니다.

■ 2019 년 4 월 15 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자녀들아, 너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번덕스런 봄날씨는 따뜻하고 화창한 날씨가 다가옴을 알려주는 징조다. 이것은 내 아들의 수난과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광폭했던 그 시간을 상기시켜 준다. 예수의 삶에서 폭풍의 계절이었던 이 시기는 그의 부활과 영광으로 이어졌다.”

“지금 너희가 사는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자연의 변화는 여름이 오기 전에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일들이다. 내 아들의 수난과 죽음과 관련해 일어났던 모든 일도 인류의 구원을 위해 반드시 일어나야 했던 일들이다. 이것이 억지스러운 비유같이 보일 수도 있겠지만, 내가 만물의 창조주 곧, 자연에서 시작해서 내 아들의 수난과 죽음을 통한 인류의 구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의 창조주라는 사실을 고려해 본다면 그렇지 않다. 자연이 변화하는 것을 너희 눈으로 지켜보면서 이 부활절에 풍파에 시달려 차가워진 너희의 마음이 따뜻하고 열렬한 사랑이 가득찬 마음으로 바뀌도록 하여라.”

**+ 성경 구절 독서 (1 코린 13:4-7, 13):**

사랑은 참고 기다립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고 앙심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에 기뻐하지 않고 진실을 두고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 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어 냅니다... 그러므로 이제 믿음과 희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계속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으뜸은 사랑입니다.

■ 2019 년 4 월 15 일.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서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님.”

“나는 이 선교회에 부성적 기쁨(Paternal Joy)의 은총을 맡긴다. 나는 이 말을 전해주기 위해 영원하신 아버지의 명령으로 너희에게 파견되었다. 이것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영혼들을 지탱해 줄 기쁨이다. 이것은 마치 너희가 기댈 수 있는 아버지의 어깨와도 같다. 이 은총은 (마라나타 샘과 성지에 있는) 영원하신 아버지께 바쳐진 작은 성지(경당)에서\* 아낌없이 베풀어질 것이다. 열린 마음으로 그곳에 가거라. 아버지께서 너희를 환영하실 것이다.”

*\* 역주: 하느님 아버지의 성지(경당)는 마라나타 샘과 성지 메인 주차장 끝 코너에 있습니다. 이 작은 경당 입구 아래에는 십계명이 새겨진 비석이 있습니다.*

■ 2019 년 4 월 16 일 - 성주간 화요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자녀들아, 어제 그리스도인들은 파리의 노트르담 대성당의 화재로 엄청난 손실을 겪었다. 대성당은 수세기 동안 오래된 전통의 상징으로 서 있었지만, 이제는 다 타버리고 꺾데기만 남게 되었다. 이에 관한 비유를 말해주겠다. 현재 쓰러지지 않고 남아있는, 한때 위대했던 이 대성당의 잔해는 오늘날 진보주의적인 교회에 비유할 수 있다. 한때 웅장했던 대성당의 꺾데기는 바로 진보주의적인 교회의 모든 것을 보여준다. 그것은 한때는 위대했었지만 지금은 내부가 다 타버려서 알아볼 수 없게 돼버린, (빈꺾데기) 교회에 불과할 뿐이다. 그곳에서는 아무도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남아있는 부분은 수세기에 걸쳐 대성당에서 봉헌된 훌륭한 기도들 덕분이다. 그러나 진보주의적인 교회는 자유의지 선택의 손을 들어주려고 전통을 모두 다 없애버렸기에 그곳에서 바쳐지는 기도는 이제 알아볼 수 없는 것이 되었다. 너희 마음 안에 보속의 교회로\* 이 대성당을 재건하여라.”

“이런 손실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는 건재하다’고 말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러나 안타깝게도 나는 너희에게 거짓말을 할 수 없다. 사람들은 물질적인 손실만 볼 뿐 영적인 손실은 보지 못한다. 나는 대성당을 구하는 대신 불길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그러나 나는 교회를

오늘날의 상태로부터 구해내야만 한다. 더이상 교회 안에 진보 세력과 보수 세력이 존재해서는 안된다. 모든 이가 하나가 되어야만 한다. 갈등은 파멸을 불러온다.”

“오늘 너희는 일년 중 가장 거룩한 주간에\*\* 위대한 대성당이 폐허로 변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이 사실을 유의하고, 논란의 폭풍이 너희 마음속의 신앙의 전통을 파괴하도록 허락하지 마라.”

\* 2001년 9월 3일 메시지 (성 토마스 아퀴나스)와 2008년 4월 28일 메시지 (예수님) 참조하십시오.

\*\* 성주간은 주님 수난 성지주일부터 시작해 주님 부활 대축일 하루 전인 성토요일에 끝납니다.

### + 성경 구절 독서 (1 베드 2:4-5):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분은 살아 있는 돌이십니다. 사람들에게는 버림을 받았지만 하느님께는 선택된 값진 돌이십니다. 여러분도 살아 있는 돌로서 영적 집을 짓는 데에 쓰이도록 하십시오. 그리하여 하느님 마음에 드는 영적 제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치는 거룩한 사제단이 되십시오.

■ 2019년 4월 17일 - 성주간 수요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태고부터 나는 내 부성적 기쁨의 축복을 이곳 성지에서 베풀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이제 나는 나를 공경하기 위해 세워진 작은 성지(경당)에서\* 이 축복을 아낌없이 베푼다. 영혼은 오직 열린 마음을 가지고 내 경당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내 축복을 얻게 될 것이다. 영혼은 큰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 모든 영혼에게는 저마다 십자가가 있기 때문이다. 이 축복은 한 번만 주어지며, 그것은 영혼의 남은 생애 동안 충분할 것이다.”

“너희는 파리의 위대한 노트르담 대성당이 폐허 가운데 서 있는 것을 보고 있다. 이것이 내가 보는 내 지상 교회의 모습이다. 점점 더 많은 진보적인 정책들이 진리를 탄압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녀들아, 너희가 배운 신앙의 전통을 고수하여라. 내 계명을 타협하려 하지 마라. 이것이 너희의 지상 여정이 계속되는 동안 너희의 구원을 보장해 줄 유일한 방법이다. 화려한 직함보다 진리를 신뢰하여라. 내가 너희를 축복할 것이다.”

\* 역주: 하느님 아버지의 성지(경당)는 마라나타 샘과 성지 메인 주차장 끝 코너에 있습니다. 이 작은 경당 입구 아래에는 십계명이 새겨진 비석이 있습니다.

### + 성경 구절 독서 (사도 5:29):

그러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였다.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느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욱 마땅합니다.

### + 성경 구절 독서 (2 테살 2:13-15):

주님께 사랑받는 형제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때문에 늘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게 하여 구원하시려고, 여러분을 첫 열매로 선택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라고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의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차지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형제 여러분, 굳건히 서서 우리의 말이나 편지로 배운 전통을 굳게 지키십시오.

■ 2019년 4월 18일 - 성목요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자녀들아, 성목요일인 오늘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성체성사의\* 제정을 기념하고 있다. 이것은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실재적 현존이다. 불신이나 무관심이 이 진리를 바꾸지는 못한다. 엄숙히 말하지만, 성체는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감싸며 위로하기 위해서 내 신성한 뜻을 통해 세상에 주어진 것이다.”

“고귀한 사제직은 내 아들을 기억하는 이 거룩한 전통을 지속시키기 위해 제정되었다.\*\* 오늘날, 내 아들의 참된 현존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 요즘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성체가 더욱 필요한 때이다. 오늘날처럼 광범위하게 배교가 확산된 적은 일찍이 없었다. 이 거룩한 현존을 받아들여라. 거룩한 사제직을 공경하여라. 그 누구도 바꾸지 못하는 진리를 옹호하여라.”

\* 예수님께서 성체에 관해 주신 메시지 참조: 6/19/08, 6/22/08, 6/27/08, 6/28/08, 7/1/08

\*\* 매 미사 때 사제의 성체 축성의 말씀으로 빵과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혼과 신성의 실체로 변화함

### + 성경 구절 독서 (마태 26:26-28):

그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반아 먹어라. 이는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모두 이 잔을 마셔라. 이는 죄를 용서해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계약의 피다.

■ 2019년 4월 18일 - 성목요일. (오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람이 된 너희 예수다.”

“수난과 죽음에서 내가 겪은 가장 큰 고통은 내 노력에도 불구하고 파멸에 빠질 영혼들에 대한 생각 때문이었다. 오늘날도 거의 마찬가지다. 나는 한때 나를 알았고 또 열정적이기까지 했지만 지금은 나에게서 멀어지고 무관심해진 영혼들 때문에 거듭거듭 채찍질을 당하고 있다. 나는 개인적 거룩함에 헌신하는 영혼들, 내 아버지를 만유 위에 사랑하고 거룩한 사랑으로 살아가는 쪽을 선택하는 이들에게서 위로를 받는다.”

“나는 교회가 내게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린다. 나는 내가 사랑으로 그들에게 주었던 성소에 관해 변덕스러운 이들 때문에 비탄에 잠긴다. 나는 입으로는 거룩함을 말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그것을 부정하는 위선자들 때문에 비통하다. 많은 영혼들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수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그들의 중대한 책임을 소홀히 하고 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이들도 구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자기 자신을 구할 수가 있겠느냐?”

“거룩한 성체 안에 언제나 현존하는 나를 위로해다오. 내 비통한 성심을 위로해다오. 너희의 노력으로 인류의 행로가 바뀔 것이기 때문이다.”

■ 2019년 4월 19일 - 성금요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자녀들아, 내 아들의 수난과 죽음은 모든 영혼의 구원으로 가는 문을 열었다. 그러나 그 문을 통과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여전히 자유의지의 선택이다. 내 아들의 공생할은 언제나 내 신성한 뜻에 따라 사는 삶을 보여주는 모범이 되었다. 그의 초점은 언제나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사랑하는 데 있었다. 그러므로, 그의 삶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르침이었다.”

“모든 영혼은 이렇게 심판 받게 될 것이다. 그의 마음은 내 신성한 뜻을 닮아야만 한다. 성금요일에 내 아들이 열어놓은 문은 내 계명에 순종하는 이들에게 계속 열려 있다. 이런 이들의 마음은 내 아들의 성심이 그랬던 것처럼 임종의 순간에 순수하고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

“내 아들의 수난과 죽음과 부활을 믿는 것으로는 구원의 문을 통과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영혼은 자신의 믿음이 자신의 삶과 선택에 영향을 주게 해야만 한다.”

“너희를 위한 내 아들의 끔찍한 고통과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여라. 마치 부활한 사람들처럼, 구원의 문을 통과하는 쪽을 택한 사람들로서 살아라.”

**+ 성경 구절 독서 (갈라 5:24):**

그리스도 예수님께 속한 이들은 자기 욕을 그 욕정과 욕망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 2019년 4월 21일 - 주님 부활 대축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함께 부활절을 기념하는 이때 나는 너희에게 언제나 부활한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부활절의 사람들이 되기를 청한다. 바로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이들이 세상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다.”

“부활한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서로 일치하여라. 이 거룩한 전통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도전받는 것을 내버려두지 마라. 예수가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음을 의식하면서 그가 내 신성한 뜻이 허락하는 기적이라면 어떤 기적이든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믿음을 가져라. 그러므로, 너희의 마음이나 계획이 부정적인 영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라. 너희의 믿음을 소중히 여겨라. 그렇게 하면 너희의 선택들은 언제나 내 계명, 내 뜻을 따르게 될 것이다.”

**+ 성경 구절 독서 (요한 20:26-27):**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모여 있었는데 토마스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토마스에게 이르셨다. “네 손가락을 여기 대 보고 내 손을 보아라. 네 손을 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 2019년 4월 21일 - 주님 부활 대축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자녀들아, 나와 함께 기뻐하여라! 알렐루야! 내 아들의 승리의 부활에서 내 힘을 느껴보아라. 내 아들의 힘은 바로 죄와 죽음에 대한 승리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함께 나눈다. 나와 내 아들은 함께, 모든 것이다. 우리는 부활이며 세상의 빛이다.”

■ 2019년 4월 21일 - 주님 부활 대축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자녀들아,

나는 모든 죄인들에 대한 크나큰 사랑 때문 내 신성한 아들의 연민 어린 성심 안으로 영혼들을 이끄는 것이다. 그렇기에, 오늘 나는 너희와 함께 죄와 죽음을 이긴 내 아들의 승리의 부활을 기념하고 있다. 너희의 남은 인생을 승리한 사람들로써 살아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내 부름이다.”

■ 2019년 4월 22일 - 부활 팔일 축제 월요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자녀들아, 나는 너희가 진리를 발견하도록 돕고 싶다. 너희는 거짓 분별로 진리를 막고 있다. 판단하지 말고, 분별하여라. 판단이란 진리에 대한 탐구 없이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분별이란 선입견 없이 영적인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분별은 다른 이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근거한 의견이 아니다. 참된 분별은 진리를 찾아내며 진리를 받아들인다. 세상에서는 수많은 잘못된 판단이 정부와 지도부를 잘못된 길로 인도함으로써 인간 역사의 행로를 바꾸었다. 정말 많은 영혼들이 거짓 분별 때문에 길을 잃고 말았다.”

“심지어 이 발현 성지와 선교회의 경우에도, 이곳이 제공하는 강력한 영적 지원이 거짓 분별에 의한 반박을 받고 있다. 내가 이곳에 허락한 많은 은총을 영적인 지도부가 근거 없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부인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곳이 제공하는 모든 은총에 확신을 가져라. 진리에 대한 너희의 믿음은 큰 열매를 맺을 것이다. 내가 약속하마.”

#### + 성경 구절 독서 (로마 2:15-16):

그들의 양심이 증언하고 그들의 엇갈리는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기도 하고 변호하기도 하면서, 그들은 율법에서 요구하는 행위가 자기들의 마음에 쓰여 있음을 보여 줍니다. 이러한 사실은 내가 전하는 복음이 가르치는 대로, 하느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사람들의 숨은 행실들을 심판하시는 그 날에 드러날 것입니다.

■ 2019년 4월 23일 - 부활 팔일 축제 화요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너희가 하느님 자비심의 축일에 이곳 성지로 올 때 좋은 마음가짐으로 와야지만 최대한으로 많은 은총을 얻을 수 있다. 흠을 잡거나 믿지 않을 구실을 찾기 위해 오지 마라. 너희 마음속에 용서못함이나 분노, 또는 어떤 형태의 질투나 영적 시샘을 품은 채 오지 마라. 기대하는 믿음으로 가득찬

마음으로 오너라. 이런 마음은 은총으로 넘치도록 채워질 것이다.”

“이 선교사업의 (존재) 목적은 세상의 마음에 사랑을 회복시켜주기 위함이다. 거룩한 성모가 이 메신저(모린)에게 말했듯이 그녀가 티 없는 성심 안에 품고 있는 모든 청원은 한 마디 곧, ‘사랑’으로 요약될 수 있다. 만약 모든 영혼이 내 아들이 그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서로 사랑한다면 다른 모든 문제는 올바른 관점에서 고려되고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다. 평화가 너희 가운데 존재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사악한 시대이기에, 이 선교사업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이곳에서 주어지는 (거룩하고 신성한 사랑의) 메시지의 진리에 매달려라. 매 현 순간 거룩한 사랑이 되어라.”

#### + 성경 구절 독서 (갈라 5:14):

사실 모든 율법은 한 계명으로 요약됩니다. 곧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하신 계명입니다.

#### + 성경 구절 독서 (2 티모 1:13-14):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주어지는 믿음과 사랑으로, 나에게서 들은 건전한 말씀을 본보기로 삼으십시오. 우리 안에 머무르시는 성령의 도움으로, 그대가 맡은 그 훌륭한 것을 지키십시오.

■ 2019년 4월 27일 - 부활 팔일 축제 토요일. (하느님 자비심의 축일 전야 - 하나되신 성심의 별판에서의 자정 기도 모임을 위한 메시지) (오전). 복되신 어머니께서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님.”

“사랑하는 자녀들아, 며칠 전에 나는 이 ‘사랑’이라고 쓰인 배너(현수막)를 들고 내 메신저에게 발현했었다\*. 나는 그녀에게 이 배너를 토요일 밤에 전시해 주기를 바라며, 또한 이것은 다른 모든 일이 그렇듯 하느님의 뜻을 통해 이루어진 일임을 말해주었다. 내 티 없는 성심의 지향들은 바로 이 한 마디, ‘사랑’으로 요약될 수 있다. 만약 모든 이의 마음속 사랑이 완전하다면 세상에는 더 이상 죄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 ‘LOVE’(사랑)이라는 단어가 적힌 배너(현수막)가 하나되신 성심의 별판에서 있었던 자정 기도 모임 동안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별판의 언덕 위 (두 성상 사이에)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 2019년 4월 28일 / 하느님의 자비 주일 - 오후 3시 기도 모임. (이 메시지는 여러 날에 걸쳐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주어졌습니다.)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우주의 창조주다. 나는 하늘과 바다와 지상의 모든 것을 만들었다. 바로 내 손에 의해 인간이 창조되었고 또 존재하는 것이다. 나는 별과 행성 들, 그리고 지상의 모든 것을 저마다 제자리에 배치해 두었다. 오늘 나는 인류에게, 내게 순명하도록 부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기 위해 왔다. 모든 죄는 거룩한 사랑에 대한 위반이다. 너희가 이웃을 완전하게 사랑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나를 완전하게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더이상 죄를 짓지 마라!”

“내 정의(심판)의 팔이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다. 그러나 내 남은 신자들의 기도와 희생이 내 팔이 떨어지지 않도록 받치고 있다. 너희가 평화를 위해 기도한다면, 무엇보다 먼저 너희의 기도가 평화로운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한다. 이중적인 마음은 평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결같은 마음을 지녀라. 나는 한결같은 마음을 지닌 이들의 편이며, 그들을 매우 쉽게 이끌 수 있다.”

“하늘의 구름은 내 햇빛을 가로막는다. 너희 마음속의 죄는 내 은총을 가로막는다.”

“동쪽에 신뢰할 수 없는 덩치가 큰 나라가 있다. 이 나라의 마수는 멀리까지 미친다. 이 나라가 불법적인 수단을 통해 알아낼 수 없는 자유세계의 비밀이란 없다.”

“내 자녀들아, 오늘 나는 천국의 내 존엄한 옥좌에서 영원한 아버지로서 너희에게 말하고 있다. 너희가 어떤 지도자를 따를 것인지, 너희 마음의 애정을 어디에 둘 것인지, 매 현순간을 무엇으로 채울지를 지혜롭게 선택하여라. 누가 되었든 단일 세계 지도자 아래 연합하지 마라. 내 지도 아래 거룩한 사랑 안에서 서로 일치하여라. 그렇게 하면 너희는 어떤 사악한 공모도 지지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런 사악한 공모는 오늘날 전 세계에 아주 많이 널려 있다.”

“오늘 나는 모든 민족을 내 자비로운 성심 안으로 이끌기 위해 너희에게 말하고 있다. 내 자비는 오직 뉘우치는 마음을 통해서만 베풀어진다. 나는 내 신성한 자비를 인류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제안하는 것이다. 요즘 시대에 인간은 내 자비를 구하지 않으며 마치 절대 심판 받지 않을 것처럼 살아간다. 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사람들의 양심을 바로잡아주어 그들이 내게 자비를 구해야

할 크나큰 필요가 있음을 깨닫도록 해주어야 하는 책임을 지운다.”

“세상은 오직 내 자비의 손에 의해서 아직까지 존재하는 것이다. 바로 내 자비가 인간 존재의 날수와 안녕을 영속시키는 것이다. 내 자비에 의존해야만 살 수 있는 것처럼 살아라. 너희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게 보여다오. 내 계명에 대한 순종과 존중으로 돌아오너라.”

“내 자녀들아, 너희를 위한 내 뜻 안에서 계속 일치해 있어라. 그렇게 하는 것이 언제나 너희에게 가장 좋기 때문이다. 나는 천국과 지상 어디서나 전능하며, 천국과 지상 어디에도 내가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다. 내 목소리는 크지만 동시에 작고 조용하기도 하다. 내 은총은 풍부하며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다. 내게 협력하는 쪽을 택하여라.”

“내 자비를 기념하기 위해 수많은 이들이 모인 오늘, 나는 모든 백성과 모든 민족에게 사랑 곧, 거룩한 사랑을 통해 내 신성한 뜻 안으로 들어오라고 다시 한 번 말해준다. 내 신성한 뜻 밖에서는 아무도 구원받지 못한다. 내 신성한 뜻은 곧 거룩한 사랑이며, 항상 사랑이다. 먼저 나를 사랑하고, 그 다음 서로 사랑하여라. 이 외의 다른 길은 없다.”

모린이 말합니다. “어떤 손이 사람들 위로 뻗어 있는 것이 보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과 땅의 주님, 모태에서부터 너희를 빚어 만들고, 너희를 먹이고 양육하며, 오늘 이곳 성지로 너희를 데려온 너희의 영원한 아버지다.”

“나는 너희 모두의 마음에 내 손을 얹는다. 너희는 오늘 이후로 다른 사람이 될 것이다. 거룩한 사랑을 닦기 위해 너희 마음을 바꿔라. 이제 나는 너희의 청원을 듣고 있다. 내 자녀들아, 너희의 뜻을 내 신성한 뜻에 내맡겨라.”

“이제 나는 내 ‘모든 민족의 아버지로서의 축복’을 너희에게 내린다.”

■ 2019년 4월 29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자녀들아, 오늘 나는 어제 있었던 기도 모임을 성공적으로 치르도록 도와준 모든 이에게 고맙다고 말하기 위해 왔다. 나는 기도 모임에 참석한 모든 이와 기도 모임을 준비한 모든 이, 그리고 내 ‘모든 민족의 아버지로서의 축복’으로 인해 마음이 변화된 모든 이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한다.\* 이 축복은 이번 해에 한 번 더 곧,

8 월에 있을 아직 승인되지 않은 나의 축일에 주어질 것이다.\*\* 하나된 성심의 축복은 6 월에 있는 하나된 성심의 축일에 주어질 것이다\*\*\*. 이 축복 또한 강력한 축복이다.”

“거룩한 사랑 안에서 하나로 일치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마음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사실 곧, 너희를 향한 내 부름을 믿어라.”

\* ‘모든 민족의 아버지로서의 축복’의 중요성에 관해서는 다음의 메시지들을 참조하십시오: 2017년 8월 7, 18, 22, 23, 24 일; 2017년 10월 9 일; 2018년 8월 11 일. 이 축복은 지금까지 단 네 번만 주어졌습니다: 2017년 8월 6 일, 2017년 10월 7 일, 2018년 8월 5 일, 2019년 4월 28 일.

\*\* 2019년 8월 4 일 - 하느님 아버지와 그분의 신성한 뜻의 축일, 오후 3 시 기도 모임

\*\*\* 2019년 6월 30 일 - 하나되신 성심의 축일, 오후 3 시 기도 모임

■ 2019년 4월 30 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자녀들아, 나는 지금 내 ‘모든 민족의 아버지로서의 축복’을 받으러 이곳 성지에 오라는 내 부름에 대한 너희의 응답에 매우 흡족하다. 너희의 일상생활에서 이 축복을 실행함으로써 계속해서 나를 기쁘게 해 다오. 너희는 이제 내 신성한 뜻 안에서 일치되어 있는, 이전과는 다른 사람들이 되었다. 이 사실을 믿어라.”

“그러니 내 자녀들아, 이렇게 내 신성한 뜻 안에서 결속된 가운데 너희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로서, 그리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내 아들딸로서 살아야만 한다. 믿지 않는 자들

때문에 무력해지지 마라. 이 선교사업과 이곳 성지에 수반된 은총에 대해 방어적인 자세가 아니라 오히려 매우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여라. 너희 주변을 둘러보고 너희 삶이 어떤 식으로 긍정적으로 바뀌게 되었는지를 살펴보아라. 너희가 믿기만 한다면 아무도 이런 사실을 바꿀 수 없다. 너희의 영(human spirit) 또한 바뀌었다.”

“더 깊은 거룩함으로 부르는 나의 부름을 듣는 것과 그것을 삶으로 실천하는 것은 다르다. 그저 내 ‘모든 민족의 아버지로서의 축복’을 받기만 하는 것과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은 다른 것이다. 너희는 이제 내 신성한 사랑과 내 신성한 뜻에 감싸인 영혼으로서 응답해야만 한다. 내 축복은 너희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너희에게 힘을 준다.”

#### + 성경 구절 독서 (필리 2:1-4):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격려를 받고 사랑에 찬 위로를 받으며 성령 안에서 친교를 나누고 애정과 동정을 나눈다면, 뜻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을 지니고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이루어, 나의 기쁨을 완전하게 해 주십시오. 무슨 일이든 이기심이나 허영심으로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십시오. 저마다 자기 것만 돌보지 말고 남의 것도 돌보아 주십시오.

#### + 성경 구절 독서 (에페 2:8-10):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는 여러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인간의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기 자랑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선행을 하도록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선행을 하며 살아가도록 그 선행을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 거룩하고 신성한 사랑의 메시지 용어 설명

#### 목격증인, 메신저, 메시지들 (Visionary, Messenger, or the Messages):

천상이 미국인 목격증인 모린 스위니-카일에게 주시는 거룩하고 신성한 사랑의 메시지들.

#### 선교회, 선교사업, 성지 (Ministry, Mission, Property or Site):

미국 오하이오 (Ohio) 주 노스 릿지빌 (North Ridgeville) 시에 위치한 ‘마라나타 샘과 성지’ (Maranatha Spring and Shrine)의 거룩하고 신성한 사랑의 에큐메니컬 선교회 및 선교사업. 거룩한 사랑의 선교회 본부.

#### 영적 여정, 거룩함의 여정, 심방들 (Spiritual Journey, Journey of holiness, Chambers):

거룩하고 신성한 사랑인 하나되신 성심의 심방들을 통한 개인적 거룩함을 향한 영적 여정.

하나되신 성심 (United Hearts):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와 티 없으신 마리아 성심의 하나되신 성심.

남은 신자들, 남은 자 (Remnant Faithful, Remnant): 거룩하고 신성한 사랑의 메시지에서는 두 가지 용어가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성경 구절: 모든 성경 구절은 천상의 요청에 의한 것이며, 한국어 성경 구절은 2005년 천주교중앙협의회에서 새롭게 번역한 ‘성경’에서 발췌합니다.

## 정기 기도 모임

### 매일 묵주기도 모임 (월요일 - 일요일) 오후 7시

모든 기도 모임 참가자는 하나되신 성심의 완전한 축복이나 거룩한 사랑의 축복 또는 신성한 사랑의 축복을 받습니다. 이 중 한 가지 축복을 얻으면 나머지 축복의 은총도 다 얻는 것이 됩니다. 이 축복들은 말이나 기도 지향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사랑의 선교회는 이 글을 읽으시는 여러분께 하나되신 성심의 완전한 축복을 전해드립니다. 이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나되신 성심의 성물 센터 (UNITED HEARTS BOOKSTORE)

하나되신 성심의 성물 센터는 월요일-금요일 (11:00-5:00), 토요일 (12:00-5:00), 일요일 (1:00-5:00) 까지 영업합니다 (영업 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더 자세한 정보는 440-327-4532 로 문의하시거나 성물 센터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RosaryOfTheUnborn.com](http://www.RosaryOfTheUnborn.com)

## 성지 오시는 길

마라나타 샘과 성지 (Maranatha Spring and Shrine) 는 로레인 카운티 (Lorain County)의 남동쪽에 위치한 이튼 시 (Eaton Township) 에 있으며 주소는 37137 Butternut Ridge Road 입니다. 본 성지는 미국 오하이오 (Ohio) 주 클리브랜드 (Cleveland) 시에서 서쪽으로 30분 거리에 위치하며, Route 83번과 Lorain Road 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서쪽으로 1.3 마일 지점에 있습니다. Lorain Road 는 서쪽 방향으로 이동하실 때 Butternut Ridge Road 로 이름이 바뀝니다. 본 성지는 Ohio Turnpike (I-80) 에서 방향에 관계 없이 Exit 152 번으로 나오시거나 Route 480 West (서쪽 방향) 에서 Exit 2번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80번이나 480번 고속도로에서 나오시면 North Ridgeville 시의 Lorain Road 가 나옵니다. Lorain Road 에서 서쪽 방향으로 4 마일 정도 가시면 (도로명이 Butternut Ridge Road 로 바뀝니다) 왼쪽에 성지가 있습니다.

## 거룩하고 신성한 사랑의 메시지

**월 메시지 묶음 (뉴스레터):** 본 뉴스레터는 목격증인인 모린 스위니-카일을 통해 주시는 모든 메시지를 출판합니다. **영어든 한국어 번역이든 무료 월 메시지 묶음을 우편으로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자신의 이름과 주소, 우표가 붙여진 하얀 편지 봉투 (사이즈: 4 1/2" x 10 3/8") 12개를 아래 성지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요금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Forever Stamps 라고 하는 우표를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중합니다.** 마지막 봉투 사용시 통보해 드리며, 그때 다시 추가로 봉투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외국에 사시는 분들은 우체국에서 환율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아퀴나스 웰컴 센터 (Aquinas Welcome Center)에 오시면 뉴스레터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주의:** 주소를 적으실 때 대문자로 크게 적어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메시지 듣기 (영어):** 녹음된 메시지를 듣고 싶으신 분은 (440) 327-5822 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새 메시지는 가능한 한 매주 수요일 기도 모임 후에 업데이트 됩니다.

**이메일 수신:** 거룩한 사랑의 메시지를 이메일로 수신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성지 웹사이트 (영어) 에서 가입하시거나 아래 이메일 주소로 수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MAMSHL@HOLYLOVE.ORG](mailto:MAMSHL@HOLYLOVE.ORG) (영어)

[HolyLoveKorean@gmail.com](mailto:HolyLoveKorean@gmail.com) (한국어)

**웹사이트:** 메시지는 검토되고 게재되는 즉시 웹사이트에 올려집니다.

## 기도 청원

우편이나 전화 또는 이메일을 통해 접수된 기도 청원은 성모님의 축복의 지점에 올려집니다.

전화 신청: 440-327-8039 (영어)

440-657-0113 (한국어)

이메일 신청: [PRAYERS@HOLYLOVE.ORG](mailto:PRAYERS@HOLYLOVE.ORG) (영어)

[HolyLoveKorean@gmail.com](mailto:HolyLoveKorean@gmail.com) (한국어)

## 거룩한 사랑의 선교회 연락처

우편 주소: Holy Love Ministries  
37137 Butternut Ridge Road  
North Ridgeville, OH 44039

아퀴나스 웰컴 센터: 440-327-8006

선교회 팩스: 440-327-8017

메시지 듣기: 440-327-5822

선교회 이메일: [MAMSHL@HOLYLOVE.ORG](mailto:MAMSHL@HOLYLOVE.ORG)

체험담 제출: [TESTIMONIES@HOLYLOVE.ORG](mailto:TESTIMONIES@HOLYLOVE.ORG)

자원 봉사자: [VOLUNTEERS@HOLYLOVE.ORG](mailto:VOLUNTEERS@HOLYLOVE.ORG)

웹사이트: <http://www.holylove.org> (영어)

**한국어 연락처:** 440-657-0113 (전화)

[HolyLoveKorean@gmail.com](mailto:HolyLoveKorean@gmail.com) (이메일)

[www.holylovekorean.com](http://www.holylovekorean.com) (웹사이트)